



제66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1월 20일)

왜 오늘 다시 자하紫霞인가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 기념 서화전 - 자쫓빛 노을에 물들다

이재호 | 202호 서화실Ⅱ | 18:00~18:30

‘한번 태어나서 기재奇才를 갖추고 한 시대의 극변極變을 다하여서 쇠만衰晩한 시대에 뿔뿔 날아오른 대가大家’라고 자하紫霞 신위申緯(1769~1847)를 평한 김택영金澤榮(1850~1927)의 표현은 신위에 대한 19세기 사람들의 존경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문과 서화의 시대가 저물고 개성과 천재를 칭송하는 시대가 열리자, 신위는 점차 잊혀 졌습니다. 삼절三絶을 논할 때에도 투철한 자의식으로 자화상을 그린 강세황姜世晁(1713~1791), 독보적인 개성을 발휘한 김정희金正喜(1786~1856) 사이에서 희미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 천재에 대한 ‘신화’를 걷어내고 보면 어떨까요? 신위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그를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생활과 업적은 분리되어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인품과 공적을 마치 별개처럼 여깁니다. 한 인물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물론 분리하는 것이 객관적이겠지만, 지나치게 파편화된 삶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많은 명사들이 화려한 명성 뒤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일이관지一以貫之’, 한 가지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 삶은 오늘날 요원해 보입니다.

시·서·화에 모두 뛰어난 인물을 삼절이라 하지만, 실상 세 가지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성취한 인물은 신위를 빼고 달리 찾기 어렵습니다. 조선후기 삼절로 꼽히는 강세황姜世晁(1713~1791)과 김정희金正喜(1786~1856)도 시만큼은 신위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정수인 시는 조형적 표현인 글씨나 그림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시어의 진실함은 작가의 인생관과 깊이 결부된다는 점에서, 신위의 예술은 진실한 삶과 여기에서 비롯된 시가 관통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위가 승정원 승지로 근무할 때 재상들 사이에서 그림을 감히 부탁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하급 서리에게 “내가 어찌 너에게만 인색하게 굴 것이냐?”라 웃으며 그 자리에서 대나무를 그려주었다는 일화는 신위의 사람됨을 잘 보여줍니다. <묵죽도>의 담백한 붓질과 신위의 인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위의 예술은 우리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생활과 업적이 분리된 시대, 삶과 하나 된 예술을 펼친 너그러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 신중(神衆)

유수란 | 203호 불교회화실 | 18:00~18:30

깨달음을 전하는 자리, 설법(說法)의 공간에는 부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수많은 청중 가운데 인도의 고대 신에서 비롯된 여러 신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본래 인도의 신이었지만 불교에 수용되어 부처의 가르침, 즉 불법(佛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석천을 비롯한 신중(神衆)은 재해를 없애주고 복과 수명을 늘려주는 신으로 신앙되었습니다.

1750년(영조 26)에 그려진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들>은 불교의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忉利天)을 관장하는 제석천(帝釋天)과 호법신인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을 보여줍니다. 제석천은 인드라(Indra)라는 인도 힌두교 신으로, 벼락을 신격화하여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우아하게 모란꽃을 살포시 든 제석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용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용왕, 해와 달을 든 아수라, 새 깃털이 달린 투구를 쓴 위태천(韋駄天), 새의 얼굴을 가진 가루라가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신중도에는 눈이 세 개, 팔이 여덟 개인 대자재천(大自在天)과 제석천, 범천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대자재천은 인도 힌두교의 최고 신이자 파괴의 신인 시바(Shiva)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중들은 불화뿐만 아니라 조각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제석천 혹은 범천으로 보이는 <신중상(神衆像)>은 구름문양이 그려진 푸른 색의 보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촬영(CT)한 결과, 머리 부분에서 종이로 추정되는 복장물(腹藏物)도 확인되었습니다.

신중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지만 동시에 가르침을 듣고자 설법 공간에 자리했던 존재입니다. 신중도에 담긴

그림 1.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들>, 조선, 1750년 깨달음에 정진했던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월광사 원랑선사탑비

권강미 | 역사의 길 | 19:00~19:30



그림 2 . 원랑선사탑비, 통일신라 890년, 높이 395cm, 보물 360호

원랑선사탑비는 원래 충청북도 한수면 동창리 월악산(月岳山) 남쪽 중턱 월광사(月光寺) 터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인 1922년 이전되었습니다.

월광사는 신라 효소왕대 승려 도증(道證)이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사기』 권8 효소왕 1년의 기록에 따르면 도증은 원측(圓測)의 제자로 당나라에서 불법을 수학하고 692년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867년 월랑선사가 주석하면서 사찰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탑비는 완형의 대작으로 전반적인 모습은 잘 남아 있습니다. 기두는 박력이 있고, 앞발은 전진하는 형상입니다. 등에는 커다란 비좌가 놓여 있는데 비좌 밑으로 운문(雲文)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등에 표현된 귀갑문은 6각형으로 안에 화문(花文)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비신(碑身)에는 석리(石理)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정

토사 홍각선사탑비>와 유사합니다. 이수에는 운룡문을 힘차게 조각하였으며 전면 에 제액이 있으나 글씨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탑비(塔碑)는 승려의 묘탑인 부도(浮屠)에 수반하여 세워지는데 비문의 역사적, 서지학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귀부(龜趺)와 이수(螭首)의 아름다움은 미술사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제66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1월 20일)

토기로 본 고대사회의 변화

최정아 | 102호 신석기실 | 19:00~19:30

박물관을 둘러보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용한 수많은 전시품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금키걸이와 금관, 다양한 색상의 구슬,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물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박물관에 가장 많은 유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토기일 것입니다. 토기란 점토를 물에 개어 모양을 만든 후 불에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제작 방법에 따라 도기·자기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토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발견(발굴)되는 유물인 토기는 상대적으로 표면 장식이나 형태가 다채롭지 못하고, 깨진 것도 많아 비교적 관람객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에게 토기는 과거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기 연구는 다른 유물에 비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토기가 중요한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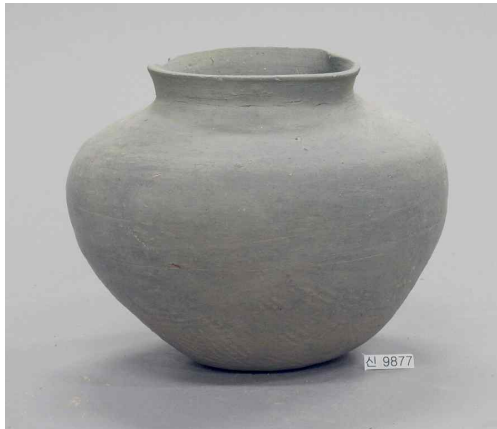


토기는 과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토기를 관찰·분석하여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고, 어떻게 빚어졌으며, 어떤 환경에서 구워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토기 내부에 남겨진 찌꺼기를 분석하여 무엇이 담겨졌는지,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의 형태나 무늬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당시의 사회모습을 추론하는 단서가 됩니다. 고고학에서 토기는 편년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학적 분석이 발달하지 않아 유물의 절대 연대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토기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모여 토기 변화를 바탕으로 한 편년 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발굴 조사한 유적의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자리를 조사하던 중 바닥이 뽕족하고 입이 넓으며 표면에 빗살무늬가 그려진 토기가 발굴된다면, 이것은 신석기시대에 제작된 빗살무늬토기이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기는 집단이나 사회, 국가 등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같은 시기에 존재하는 고대국가였으나, 사용하던 토기의 종류와 형태·제작방법 등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토기의 출토 양상을 통해 국가별 영역이나 교류 양

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는 토기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이 깔려있습니다. 토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생활도구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질자료 중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나 편향된 사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과거를 반영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비교적 제작이 쉽기 때문에 사회의 발달이나 집단의 변화, 문화 변동 등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즉 토기의 변화는 단순히 제작자의 심리적 상황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p>그림 1.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시대, 서울 암사동)</p>	<p>그림 2. 짧은 목 항아리 (백제, 서울 암사동)</p>
	
<p>그림 3. 몸이 긴 항아리(고구려)</p>	<p>그림 4. 말무늬 굽다리 긴 목 항아리(신라)</p>